

한지민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하이힐ing

크리크.....크릭은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다.

만은 게으른 줄 아해, 아니 모든 게으른.

일어서서 꽃을 베는 토조림 깎고 에 꽃을 며서 니나는 말해다.

몸이 저주스런 이 사람도 좋아해.

...초대합니다♡

가고는 싶지만 혼자라서 고민하는 당신,
잘 모르는 사람과 떠나는 여행이라 고민하는 당신
망설이지 마세요~

작년 처음으로 세미나를 통해 발을 담그게 된 총여학생회. 혼자 찾아와서 시작하게
된 총여학생회와의 인연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겨울 마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은 모습들... 어떤 때에는 나 자신을 가려야만 하고, 어떤 때에는
나 자신을 바꾸어야만 하는 수많은 일들. 세상의 기준에 따라 너는 이 정도가 되어
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 나 자신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곳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보여
주자는 무거운 선들...

하지만 1년 동안 인연을 맺은 그 사람들 속에서 정말 편안하고 꾸밈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후배',,, 등의 수많은 선이 아닌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
야기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경험들을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밤새 마음껏 수다 떨면서 그동안 쌓여온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 놓기도 하고 재미있
는 놀이를 통해 몸으로 친해져 보기도 하자구요~ 여자친구들과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
기도 하고, 그 동안의 불만을 털어내 버리기도 하자구요.

혼자라서 망설이는 당신, 잘 모르는 사람과의 여행이라 고민하는 당신~
세상의 무거운 가면을 벗고 자신을 찾아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멋지고 즐거운 여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 총여에 발 담근 펄펄, 마실을 준비하며, 같이 떠날 여러분께 드리는 글

...게조글♡

20살 이후로 저는 펭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태어날 때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도 소중한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나의 욕망을 표현하기엔 일방적으로 주어진 사회적 이름이 아닌
펭귄이라는 이름이 더 나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 이름은 여성인 나를 더욱 더 여성답게,

사회의 구성원인 나를 더욱 더 충실한 사회의 구성원답게 만들려고 해요.

한 가정의 딸로서, 성균관 대학교의 여대생으로서, 대한민국의 20대 여성으로서,
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금의 우리 사회는 여성인 나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전형적인 여성의 틀로만
나를 가두려고 해요.

여자니까 조신하게, 더! 더! 예쁘게, 다정다감하게들과 같은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다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정말로 나의 모습이 아닌 남이 좋아하고, 사회가 좋아하는 모습을
맞춰 행동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모른 채 여성이라는
이름아래 그 사회적 기준에 맞춰 충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 모습에 진정한 나를 찾고
싶지 않나요?

이번 언니들과의 마실에서는 내안에서 나도 모르게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자신만의 뜨거운 욕
망과 어딘엔가 모르게 공공 숨어있었던 또 다른 나를 활짝 기지개 시켜 즐겨요!

나는 나예요!

이 사회를 더욱 더 발전하게끔 만드는 모범적인 거름이 되기를 거부하며,

나만의 색깔을 찾아 떠나는 2006 겨울 마실을 언니들이 언니들에게 제안합니다.

- 총여방 귀통이에서 여러분과의 여행에 한껏 높이 봉봉 떠 있는 그녀들이-

...일정소개♡

만나는날	친해지는날	사랑하는날
	늦게 잠깨기 달거리 체조 헤드워 어떤?	늦게 잠깨기 달거리 체조
오후 도착 늦은 점심 남남남	신나는 눈썰매! 아싸 말뚝박기 신난다 고무줄! 마구 친해지자구	자기 식사식!
서로 알기	저녁 먹고 좀 자자	
맛난 저녁 남남남	Let's P/L/A/Y, Girl!! - 세상유일 연극	고고 홈집으로 + 네버 엔딩 뒷풀이.
한판 땡겨~ 포크댄스	끝없는 수다 한판!	우리의 인연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구!
질러 버려! 성토허기		

만나는 날

우선 오후쯤 도착해서 늦은 점심을 먹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소개를 하자.

예를 들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모티프가 담긴 물건과 영화의 주인공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도 있을 거야. 이때 닉네

임도 지어 보면 어때?

간단한 포크댄스 한판!

실내이니 너무 많은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안 될테지만 살을 부비며~~ 서로 친해지기
에는 더없이 좋은 시간이 되겠지?

자 자 드디어 성토허 하자.

그동안의 불만들을 털어 내고, 분출하는 것을 통해 공감도 형성하고
그와 함께 나는 여자라서 이런 점이 좋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사회에서 정해진 여자란 어떤 것일까? 생각도 해보자.

나를 다른 틀로 설명해 볼 수도 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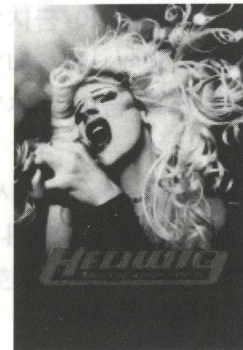
그 후에는 실 사람은 쉬고 더 이야기 하고 싶은 사람은 이야기 하자.

물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행복할거야♡

친해지는 날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먹을 사람은 먹고,

달거리 체조를 할거야. 그리고 헤드워 상영!



헤드워는 남아있는 것은 1인칭인 록 스타 헤드워와 앵그리
인치에 관한 이야기야.

동 베를린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한셀은 미군 라디오
방송에 심취하면서 데이빗 보위, 루 리드, 이기 팝 등의 음악
에 열광하는 평범한 소년이다. 좁은 아파트에서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엄마를 피해 오븐 속에서 락 음악을 듣는 것이지.

그러던 어느날 그에게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
바로 미군 병사가 그에게 여자가 되는 조건으로 결혼을 제의한 거지. 한셀은 성전환
수술을 받기로 하지만, 싸구려 수술의 실패로 인해 그의 가슴엔 여자의 그것 대신 일
인치의 살덩어리만이 남게 돼.

몇 년후, 캔사스 트레일러에 사는 헤드워는 [미너 삼총사]의 주인공 파타 포셋의 가
발을 쓰고, 록 밴드 앵그리 인치를 조직하여 번두리의 바를 전전하며 노래를 불러. 그
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16세 소년 토미를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토미는 그녀를

배신하고 그녀가 만든 곡들을 훔쳐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해. 데 스타가 된 토미는 백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 기록인 플래티넘 레코드 기록을 세우며 전국 콘서트를 개최하고, 헤드워드는 토미를 따라다니며 그가 공연하는 공연장의 옆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공연을 하곤 해. 흥미진진한 헤드워드가 같이 헤드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면 어떨까?

드디어 신나는 눈썰매장!!

눈썰매도 타고, 말뚝박기도 하고 고무줄도 채겨 가자. 몸으로 부딪히며 친해 적어야지. 그동안 학교에 놀 공간이 없어서, 남들 시선이 두려워 마음껏 몸으로 표현하지 못했다면 신나게 신나게 한판 놀아 보자.

대망의 연극!

나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많잖아. 표현하고 보여주기에 어색했던 우리, 이제부터 각자 '나'라는 배역을 맡아서 멋진 연극을 한 편 만들어 볼 거야. 서로에게 흠뻑 빠진 관객이 되어, 가장 풍부하고 대답하며 자유로운 표현력을 지닌 staff가 되어, 세상 유일 가장 멋진 연극을 하자. 자기의 이야기를 담은 오브제를 살포시 하나만 채겨와 줘. 그 어떤 물건이나 소재든 다 좋아.

오늘은 늦게까지 놀아야지.

사랑하는 날이야.

늦게 일어나

달거리 체조를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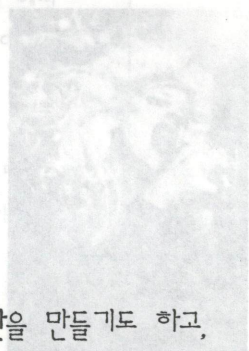
각각의 공간에 예쁜 종이를 붙여 헤주고 싶은 말들을 쓰는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중간 중간 팔씨름도 하자고! 팔씨름 1등 상품은 혹시 망사 스타킹?

아침, 싹뜨기도 하자.

여자 친구들이랑 실컷 놀고 오는 거야! 네 안에 감춰진 나를 만나자고!

마실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뒷풀이와 멋진 인연들도 기대 하시라~!



리플 & 리플

처음엔 정말 몰랐어. 그런 건줄은.....

화이트데이였지. 강동구청역에서 지갑을 하나 주웠더라고.

어떤 남자가 마구 뛰어가다가 흘린 거였는데.

어찌나 정신없이 뛰는지 지갑을 흘렸는지, 내가 부르지도 모르더군.

지갑 안에 신용카드, 명함 운전면허증 등이 들었더군.

75XXXX-1XXXXX 아마도 주민번호가 이 정도였던 거 같아.

경찰서도 근처에 안 보이고.

카드를 쓸 배포는 없어서 명함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

"강동구청역 앞에서 지갑을 주웠는데요."

"따르릉~따르릉"

"네, 여보세요?"

"지갑 주우셨나요?"

"제가 지금은 집에 가고 있는 길이라 당장 드리긴 힘들거 같고."

"지금 어디신가요?"

"네? 아... 막 군자역에 다와 가요."

"제가 지금 그리 갈 테니 기다려 주실래요?"

사실... 할 일도 많았고 귀찮아서 싫었지만, 기다려 달라는데 별 수 있나.

내렸지.

한참을 기다리는데 저기서 오더군.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제 명함인데,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밥 한 번 살게요."

뭘 바래. 라는 생각에 연락하지 않았는데.

먼저 온 그 사람의 문자에 답을 보내고, 그러고 그러다가 통화도 거의 매일하게 되었지.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주민번호를 알아버려서.

계속 존댓말을 들어주는 게 어색하더군.

그래서 먼저 말을 놓으렐지.

나는 남자인 너보다 못할 거 하나 없다.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한다.

아니, 너보다 더 잘 할 수 있다.

리플

송명화 : 우와!!! (01.15 16:35)

심민경 : 음 이 글을 읽고 밑에 우리들의 리플들을 좀 달아서 같이 실었으면해.
(01.16 10:36)

심민경 : 글을 읽으니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거든. (01.16 10:37)

이김보라 : 그들에게 여자란 자기 짝이 될 수 있는가/없는가 로 나뉘지. (01.16 11:10)

이김보라 : 짝이 될 수 없더라도 오빠라는 말을 듣는건 아주 좋아라 하지.
(01.16 11:11)

이김보라 : 성적인 대상이거나/ 아니거나/ 보호해줄 여동생이거나. (01.16 11:11)

심민경 : 그렇게 말야. 오빠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 많은 남성이상의 무언가가 있나봐. (01.16 11:12)

심민경 : 오빠라는 말을 하기를 정말 끊임있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말을 들을 때 쾌감의 정체는 뭘까? (01.16 11:12)

이김보라 : 오빠라는 말 속에 담긴 성적인 의미를 읽어내야해 (01.16 11:24)

이김보라 : 이를테면 그들이 이상적인 짝이라 생각하는 대상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이고, 오빠라고 간드러지게 자신을 불러줄 대상이겠지. (01.16 11:25)

송명화 : 난 오빠라고 사람들을 잘 부르는걸... 물론 글과 같은 상황은 아니었

지만 (01.16 13:15)

김하나 : 이놈의 세상에서 '오빠'라는 말은 그 하나로 거의 완벽한 권력을 장악해버리게 되지 않아? 성별권력 나이권력... (01.16 14:16)

김하나 : 상대와 자신의 위치나 능력 따위를 고려하지 않아도 아무튼 내가 뭔가를 더 쥐고 있고 그래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거지 (01.16 14:17)

김하나 : 다른이에게 기꺼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쁘지 않은 경험이잖아? (01.16 14:17)

이선규 : 나도 이런 경험 있어! 정말 평소에 내가 좋게 보던 과선배가 있었는데 시험기간에 시험범위를 몰라서 "선배~!여기까지가 시험범위 (01.17 14:03)

이선규 : 맞나요?"이랬더니, 그 선배가 갑자기 정색하면서 한다는 말이 "선배가 뭐니? 오빠라고 불러~!"이러는 거야. 순간 여태까지 그 (01.17 14:04)

이선규 : 선배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감정들이 한 순간에 무너지면서 너무나 기분이 최악으로 변했었어;;; (01.17 14:04)

Let's P/L/A/Y, Girl-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의 인간이에요. 당신과 똑같은..... 그렇지 않다면 저는 최소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 말이 옳다고 하고, 또 책에도 그와 비슷한 말이 써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론이 어떻고, 책에 뭐라고 써어 있고 간에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이 그것을 생각하고, 해명해 내도록 해야겠어요.

- H.J.입센 [인형의 집] 중 '노라'의 대사 -

"안녕하세요. 난 한때 어머니였어요. 한때 당신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셜리 발렌타인이 됐답니다. 함께 한잔 하시겠어요?"

- W.Russel [셜리 발렌타인] 중 '셜리'의 대사 -

연극을 한다는 건 참 설레고 멋진 경험이야. 처음엔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마치 정말 그 사람인 양 잘 꾸며낼 수 있는 사실 자체가 즐겁고 재미있었어. 나를 향하는 조명과 관객들의 시선도 묘하게 날 흥분시켰지. 그러다가 점점 상대배역과 호흡을 맞추는 모미가 생기더군. 이심전심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집중도가 한껏 고조되었을 때에 느끼는 그 짜릿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유쾌한 것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가장 나를 사로잡았던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흥내내기에 급급했던 그 배역인물이 점점 내가 되어가고, 또 내가 점점 그 배역 인물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야. 둘이라고 생각했던 인물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반복해서 연습하던 같은 대사는 더 이상 같은 대사가 아니게 되었고, 그것은 그저 대본에 적인 말인 것도 같았지만 그 역할을 소화하고 있는 '나의 말'인 것도 같게 되었어. 나는 내가 맡은 역할로 인해 그와 같은 내 모습을 기억해내고 새롭게 만나게 되었고, 내가 맡은 역할은 나의 기억과 물입으로 인해 생명력을 갖고 실재하

여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지.

프로도 아니었고, 진짜 아마추어들끼리 모여서 열의 하나로 만들었던 그 공연은 아직도 내 머릿속과 가슴속에 너무 생생해서 여전히 이후의 또 다른 무대에 대한 욕망에 불을 지피고 있어. 그때와는 또 달라진 내가, 그때를 그리워하며 이후의 꿈을 위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말이 적힌 희곡과, 그것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진 무대야. 사실, 연극이 현실의 재현이라는 틀에 강하게 묶여 버릴 때 흔히 그러한 공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비판이나 문제의식 없이 반복함으로 써 오히려 폭력적이 되어버리는 고정관념들, 모순적인 제도와 상황들... 사실 우린 다 알 수 있잖아? TV나 영화에서 같은 상황을 보여주어도 저러한 장면 연출을 각각 어떤 의도로 한 것인지를 말아야. 성폭력 장면을 묘사해도 단순히 자극적인 장면 삽입을 위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지를 아무리 교묘하게 감춰놓아도 다 느낄 수 있는 거지.

응 그래,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난 '연극'이라는 무궁무진한 그 놀이에 나 자신과 너희들을 끌어들이고 싶어졌어.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연극'은 나 아닌 사람을 표현하고 또 구경하는 행위인 동시에 나를 표현하고 나를 구경하는 행위라고 생각해.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있는 그대로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익숙하거나 쉽지 않도록 길들여진 우리, 연극을 하자. 희곡의 3요소, 연극의 3요소 같은 건 싹 치워버리고 우린 그냥 연극을 하는 거야! 지껄이고 싶은 대로 놔두는 즉흥 모노드라마여도 좋고, 너무 인상 깊었던, 그래서 늘 갈망하였던 배역에 나를 온전히 적셔보아도 좋아. 대사가 필요 없다면 몸짓, 눈빛으로도 충분하겠지. 그걸 위해 필요한 빛, 소리, 공간, 시선, 움직임 그 어느 것 할 게 없이 전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놀아보자. 난 '나'라는 배역을 맡아서 너에게 온전히 빠져버린 관객이 될게. 자, Let's P/L/A/Y/, Girl.

* 마실가서 만들 연극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이 하나 있어요 ^^

자기 이야기가 담긴 오브제를 그 무엇이든 좋으니 하나씩만 가져오세요~ 물건, 사진, 녹음테이프, 혹은 연상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소재라도 좋아요.